

활로 하나 되는 세계... 활시위를 힘껏 당겨보자!

경북

예천 세계 활축제

“이두근, 삼두근, 광배근 자랑할 준비되었습니다. 활 한번 쏘보실까요.”

대한민국 활의 메카, 예천에서 특별한 활 축제가 열린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2019 예천세계활축제'다. 예천읍 한천체육공원 일대에서 18~20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예천세계활축제는 '2018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에서 축제예술·전통부문 대상을 수상하면서 대한민국이 인정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열리는 예천세계활축제도 손님맞이 준비는 끝났다. 전국 최대, 최대 규모로 손잡을 체험형 프로그램이 대거이다. '세계'라는 타이틀이 부끄럽지 않을 공연과 이색대회도 준비돼 있다.



- 1 지난 예천세계활축제 활·화살 만들기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들이 축제장 전시관에 전시돼 있다.
- 2 필드아치리에 참가한 한 학생이 동물모형 입체 표적을 겨냥하고 있다.
- 3 키르키즈스탄에서 활 시연단으로 참가해 아크로바틱 활 쏘기를 선보이고 있다.
- 4 글로벌 활 시연단인 전통 활쏘기 시연을 펼치고 있다. (예천군 제공)

18~20일 한천체육공원 일대서 손님맞이 전국 최대 규모 공연·체험·이색대회 등 다채 불꽃놀이·예천장터 농산물 대축제도 진행

◇장관, 또 장관... 개막식 불꽃쇼

예천세계활축제는 개막식부터 남다른 화려함과 완성도로 축제의 문을 연다. 18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식전 거리퍼레이드는 그야말로 장관이다. 예천초교 정문에서부터 한천체육공원 메인무대까지 약 1km 구간을 줄지어 가는 거리행진이다.

세계 24개국에서 참가한 세계전통활쏘기대회 참가자와 각종 공연팀, 주민 등 2000여 명의 참가자들이 퍼레이드 행렬에 동참한다. 퍼레이드는 공군외장대 및 육군3사관학교의 군악대공연과 퍼포먼스 등으로 꾸며져 관람객들의 눈길을 뺏는다.

개막식 행사는 오후 5시부터 진행된다. 퍼레이드 행렬이 축제장에 들어오면 예천군민들은 활 축제 플래시몹으로 퍼레이드 참가자들을 환영한다.

식전 행사가 끝나면 김학동 예천군수와 이상택 매일신문 사장 등 기관단체장과 내빈들이 함께 활로 박을 터트린다. 본격적인 개막식의 대미를 장식할 불꽃놀이는 오후 8시에 시작된다. 나이가가라폭포를 연상시키듯 쏟아지는 불꽃과 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할 다양한 단발 불꽃 등이 이날 최고의 볼거리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체험을 위한 축제인가? 축제를 위한 체험인가?

활을 잘 쏘는 민족이라는 DNA만 믿고 무턱대고 담뱃대간 근육통으로 사나흘 고생하기 십상이다. 활쏘기는 전국민적 스포츠가 될 자격이 있지만 아쉽게도 팔에 붙은 이두와 삼두만으로 쏠 수 있는 간단한 놀이가 아니다.

활은 전신 근육 사용의 '끝판왕' 운동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목덜미의 승모근에서 어깨의 견갑근으로 넘어가는 힘이 유기적으로 전달돼 활시위를 당길 수 있다. 세세한 근육들까지 도와야 과녁에 조준할 수 있다. 등의 넓은 근육인 광배근과 대원근, 어깨세모근을 비롯해 하체의 정수인 허벅지, 종아리까지 전신 근력이 합심해야 '명중'이라는 두 글자를 얻는다.

그러나 명실공히 국내 최대 체험형 축제를 자부하는 예천세계활축제에서는 활을 활용한 새롭고, 흥미롭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고안해냈다.

활쏘기 초보자도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중 으뜸은 '필드아치리(Field Archery)'와 '활 서바이벌'이다. 지난 축제에서도 구름인파가 몰려들어 그 인기가 입증됐다. '필드아치리'는 말 그대로 '숲 속을 누비며 즐기는 사냥'이다. 주몽의 후예임을 유감없이 발휘해도 좋다. 이것은 실전 활쏘기 경기다. 축제장내 자연과 어우러져 설치된 동물모형의 3D 입체 표적이 목표물이다. 표적을 활로 맞으면 동물 울음 소리가 난다. 모형 표적에 제대로 맞았는지 확인된다는 뜻이지, 생명을 죽여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게임은 게임일 뿐이다.



'활 서바이벌'은 활을 이용한 서바이벌과 피구 규칙이 섞인 하이브리드 스포츠다. 경기 규칙도 쉽다. 제한시간 안에, 제한된 공간에서 활과 특수제작된 스피드 화살을 이용해 상대방을 맞춰 내보내는 식이다. 제한시간까지 많이 살아남는 팀이 승리하는 방식이다. 배구공 대신 활을 이용한 피구로 이해하면 빠르다. 3-4명이 한 팀이 된다. 제한 시간은 10분, 혹은 절반인 5분으로 할 수 있다. 토너먼트 경기 방식, 데스매치로 진행된다. 총 440만원의 상금이 걸려 있다.

근육량과 관계없이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활 관련 체험도 늘었다. 여러가지 방식으로 다양한 종류의 활을 쏠 수 있는 활쏘기 체험, 전통 전투무기 만들기, 무사복 입기 체험, 활과 무관하지만 같은 무기류라는 동류항의 페인트건 쏘기 체험도 준비돼 있다.

◇이색 대회와 공연... 눈, 귀 사로잡힐 각오해야

국궁에 뿌리를 둔 예천은 활에 대한 자부심이 각별하다. 이제는 활을 바라보는 영원한 '여고생 신공' 김진호의 고향이자 내려오라는 국가대표 공사를 배출한 고장이기도 하다. 국내 최초 전용 경기장을 마련해 오랜 기간 국내의 국가대표, 실업팀 선수들의 훈련장으로 각광받았다. 이런 명성에 힘입어 축제기간 외에도 국제대회 규모의 각종 양궁대회를 개최하는 등 양궁의 메카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축제에서도 이색적인 대회를 마련해 '활의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단단히 다진다. 세계전통활쏘기대회와 전국양궁동호인대회, 경북남녀궁도대회, 활서바이벌대회, 활·화살 만들기 공모전 등 각종 대회에 걸린 상금만 모두 2000만 원에 달한다.

활·화살 만들기 공모전은 '나만의 활·화살 만들기'란 주제로 지난 달 30일까지 접수를 받았다. 일반부와 학생부로 나뉘어 응모된 작품 중 수상작은 추후 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상은 축제 개막식에 있을 예정이다. 이 중 특선 이상 수상작은 축제기간 동안 축제장 전시관에서 전시한다.

전국학생미술실기대회도 함께 열린다. 저라나는 학생들에게 우리 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미적 사고와 정서를 균형있게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자는 취지다. 대회기간 내내 실시된다. 수상작은 다음 달 예천군청 갤러리에 전시될 예정이다.

◇축제 속 또 다른 축제... '2019 예천장터 농산물 대축제' 농업을 축으로 성장해온 예천이다. 여전히 품질 좋은 농산물로 전국을 호령한다. '예천장터 농산물 대축제'는 활 축제 속 또 하나의 축제다. 예천을 시가지 일대에서 열리는

'예천장터 농산물 대축제'는 '과학 영농과 정보 교환의 장으로 예천군 농업의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를 내걸었다. 과학 영농과 정보 교환의 자리에는 흔히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농기계를 한자리에 모아 전시하고 시연한다. 전천후 농사꾼으로 변신한 드론을 비롯해 오토팜, 스마트팜 등 시설들이 선을 보인다.

우수 농민을 선발하는 '최고 농부를 찾아라', 마을 대항 장기자랑인 '우리동네 최고야', 시골에서 직접 생산하는 다양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할배·할매 시골장터' 등 주민 참여 유도형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농산물 즉석 경매, 관광객 노래자랑,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등도 진행된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당초 예천세계활축제에는 10여 개국 정도가 참가했지만 4회째를 맞은 지금은 24개국으로 그 수가 늘었다. 그만큼 축제의 규모와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예천의 활 우수성이 세계로 널리 전파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며 "40여 년 역사의 예천 활은 권영록, 권우갑, 권영학, 권무석 등 수많은 공장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진호, 윤옥희, 장우호 등 무수한 신공들을 배출하며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통 활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매일신문·윤영민 기자 yun1011@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